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와 노인신학의 발전방향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이 기 양 교수

1. 머리말

우리는 더 이상 젊어지지 않는다. 자명한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교육, 예술, 경제, 건강, 그리고 분명히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이 차지하게 될 미래의 교회는 노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더욱 확장된 사역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역을 바르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올바른 노인신학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것을 기초로 실천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인구의 동향과 관련된 요소들을 살펴본 다음 이것이 가져오는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노인신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 노인 인구의 동향

2-1. 노년기의 시작

노년기가 시작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사회법 체계에 의존하는 것과 노인으로 정의하는 연대기적 연령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고 합리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의무적 은퇴 연령과 연금 수혜 자격이 시작할 때 노인으로 정의된다. 선진화된 산업 국가들의 사회법 체계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를 표준 은퇴 나이로 구분하여 연금수혜자격을 받게 되고 ‘노년’, ‘노후의 삶’, 또는 ‘제 3의 나이’에 들어가는 시점으로 여기고 있다.¹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¹Laslett, P. (1989)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p. 4. Laslett describes the life course thus: ‘First comes an era of dependence, socialisation, immaturity and education; second an era of independence, maturing and responsibility, of earning and saving; third an era of personal fulfilment; and fourth an era of final dependence’

은퇴 연령 전에 기존에 하던 일을 거의 강제적으로 멈추게 된다.²

현재 한국에서는, 노인기가 60세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90% 이상의 근로자들이 60세 이전에 은퇴하며 국민연금의 수혜자격연령도 현재 가입기간 10년(특례노령연금은 5년)이 되고 만60세(조기 노령연금 및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연금수급연령은 만60세이고,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된다.³ 국민연금 시작 당시 1988년에는 60세로 정하였으나 국민연금 예산의 문제로,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정책상 연령을 늦추고 있다. 1982년 World Assembly on Ageing에 의하면 노인기가 시작되는 연령을 60세로 채택하고 있다.⁴ Martin이 내리는 또 다른 정의는 조부모 역할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는데⁵ 한국의 전통에서는 60세에 이르게 되면 환갑을 축하하고 노인들은 힘든 농사 일 (또는 기존의 일)을 멈추고 노인기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손자 손녀와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2-2. 노인인구 구조의 변화

한국의 노인인구 구조도 1962년도에 시작한 경제개발 오개년 계획의 한 부분으로써 실시한 가족계획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에 의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었다. 유럽에서 150년 걸렸던 것을 한국은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성취할 수 있었다. 인구증가에 있어서 60세 이상 노인 수의 증가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기까지 프랑스는 130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0년, 영국은 50년, 독일은 45년, 중국은 27년, 일본은 25년이 걸린 것에 비해 한국은 22년이 걸렸다.⁶ 이것은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

²Lackzko, F. and Phillipson, C. (1991) Changing Work and Retirement,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p. 72.; see also Tinker, A. (1992) Elderly People in Modern Society, London & New York: Longman, p. 6.

³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info/index_03.html.

⁴United Nations, (1989)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Studies on the Integration of the Aging in Development: Legislation,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rvice, New York: United Nations.

⁵Martin, J., Meltzer, H. and Elliot, D. (1988) The Prevalence of Disability Among Adults, OPCS Surveys of Disability in Great Britain, Report No 1. London: HMSO.

⁶United Nations (1990) World Population prospects, New York: UN.; United Nations, Demographic Year Book, New York: UN.; United Nations, (1956) The Aging of Population and

하여 높은 사망율과 출산율로부터 낮은 사망율과 출산율 그리고 높은 낙태율로의 극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그리고 1993년도에는 연간 인구 증가율이 1% 미만이었다. 1994년도 전체 인구 수 44,453,000이 2021년도에는 50,590,000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지만 그 후로는 감소할 것이다.⁷

유사한 변화들이 출생율과 사망율의 조사에서도 볼 수 있다. 1960년과 1995년 사이의 일반 출생율은 인구 1,000명당 43명으로부터 15.2명으로 줄었고 2000년도에는 14.2명, 2010년도에는 11.3명, 2021년도에는 10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한다. 일반 사망율에 있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인구 1,000명당 13명에서 5.9명으로 줄었고 2000년도에는 6.1명, 2010년에는 7.2명, 2021년도에는 9.7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시 같은 기간 동안 196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자연증가율이 인구 1,000명당 30명에서 9.3명, 2000년도에는 0.81, 2010년도에는 0.41, 2021년도에는 0.03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⁸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지난 30년 동안 놀랍게 증가하였다.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은 다가오는 장래에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1910년(23.5세)에서 1990년(71.4세) 사이에 남녀 모두 약 3배가 증가했고 지금은 남자 평균수명은 71.7세 여자는 79.2세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 수가 1960(1,383,000명)년으로부터 1980년(2,268,000명) 사이에 약 2배로 증가 했으며 2020년도(9,268,000명)에는 약 7배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1999년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60세의 한국노인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16년을, 여자가 2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내다본다.⁹

Its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New York: UN.; WHO (1999) Ageing Exploding the Myths, Geneva: WHO.

⁷Han, Y. J. (1996) Health Profile of Korean Women, Seoul: KIHASA, p. 6. The government started providing free contraceptive services, introduced charges for sterilisation accepters after a second delivery, gave priority in allotting public housing to sterilisation accepters with two children.

⁸Hwang, N.M. (1996) Overview of Reproductive Health Indicators in Korea, Seoul: KIHASA, pp.7-8.; see also NSO (1991) Results of 1990 Population Census and New Population Projections, Seoul: NSO.

⁹Kim, C.K. (1984) 'Current Health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Aged',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4, 60-72.: Economic Planning Board, the Republic of Korea (1989) Population Statistics and Future Population Estimates, Seoul: Economic Planning Board.;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1)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1990-2021), Seoul: National Statistical

현대화의 영향으로 전형적인 한국 가족 수의 크기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의 도시화 집중과 전쟁 후의 출생율의 감소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55년도에는 가족 수의 크기가 가정 당 5.7명, 1980년도에는 4.6명, 1990년도는 3.7명 그리고 2000년도에는 3명 이하로 줄었다.¹⁰

평균 수명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영아 사망률로써 지난 30년 동안 1960에서 1992년 사이에 영아 1000명 당 69명에서 12.8명, 그리고 1998년도에는 9명으로 낮아졌다.¹¹

도시와 시골 지역 양쪽에서 살고 있는 노인과 관련된 인구구조도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미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을 시골로부터 도시지역으로 이주시켜왔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훨씬 더 뚜렷해 질 것이고 시골지역 노인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크게 공헌한다.

1990년도 도시에는 55% 시골에는 45%의 노인이 살고 있었지만 도시 인구의 5.6%를 차지한 반면 시골은 13.6%를 차지했다.¹²

결론적으로 한국의 노인들은 노년기에 상호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가까운 친지들이 거의 없게 된다는 것은 다른 선진국의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영국 잉글랜드의 경우 혼자서 사는 노인의 수는 1951년도의 17%에서 1990년도에는 45%이고 미국의 경우는 1960년도에 20%에서 1990년도에는 31%로 늘어났다. 다른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통계를 만나 볼 수 있는데 특히 덴마크는 1960년도의 35%으로부터 1990년도에는 53%까지 증가하여 대단히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¹³ 이러한 상황은 노인들 가운데 심각한 고독과 보살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혼자 살고 있는 남자 노인의 절반 이상과 여자 노인의 3분의 1 이상이 외로움의 고

Office.; United Nations (1999) United Nations Population Ageing, <http://www.undp.org/popin/wdtrends/a99/a99aas.htm>; 동아일보 2001.7.25

¹⁰Economic Planning Board (1989) Annual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eoul: Economic Planning Board.;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3) Social Indicators in Korea, Seoul: National Statistical Office

¹¹MOHSA. (each year) Yearbook of Health and Social Statistics, Seoul: MOHSA.

¹²Choi, S.J (1996) 'The family and ageing in Korea: a new concern and challenge', Ageing and Society, 16(1), 5.; see also Lee, G.O. et al, (1994) The Analysis of the Reality of Elderly Life and the Policy Problem, (translated by me), Seoul: KIHASA, p. 24.

¹³Jerrome, D. (1993) 'Intimate Relationships', in J. Bond, P. Coleman and S. Peace (eds) Ageing in Society, London: SAGE, pp. 226-240.; see also AARP (1998) Aging Everywhere, Global Aging Report, p. 13.

통을 안고 있다.¹⁴

현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경제개발 오개년 계획과 인구조절정책 (예를 들면, 불임수술, 유산, 자녀 수 제한을 위한 의료혜택)은 출산율과 영아 사망율을 급격히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노동력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특히 노동 현장에 여성 참여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은퇴는 가속화되었고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구성원의 수에서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로 인해 노인의 영적, 경제적, 건강관리와 부양 등의 수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세계 노인인구 동향과 부정적 이미지

20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에서 괄목할 만한 증가를 하였다. 이러한 인구동향은 선진국가에서 일찍이 나타났으며 현재 유럽 노인인구 비율은 평균 21%에 달하며 2050년에는 적어도 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⁵ 예를 들면, 영국의 평균수명은 20세기에 2배까지 늘어났고 OECD 나라들은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99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18%이던 것이 1999년도에는 21%로 증가하였다.¹⁶ 제3 세계 국가들의 인구구조에서도 동일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4분의 3은 60세 이상의 노인 수가 2025년까지 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현재 개발도상국 전체에 살고 있는 61%의 노인인구가 70%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발도상국가의 노령화 속도가 더 많이 선진화된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60세 이상의 세계 노인인구는 약 5억 8천만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수치는 10억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⁷

1960년대 중반부터, 노인인구의 증가가 인구비율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인간의 노화와 노인에 대

¹⁴Abrams, M. (1978) *Beyond Three-Score and Ten: A First Report on a Survey of the Elderly*, Mitcham: Age Concern.; see also Bond, J., Coleman, P. and Peace, S. op. cit., p. 252-253.

¹⁵AARP (1999) *Global Aging e-report*, August.

¹⁶Henwood, M. (1992) *Through a Glass Darkly: Community Care and Elderly People*, King's Fund Institute, Project Paper No. 14. London: King's Fund Centre, p. 8.; *The Economics of Ageing*, *The Economist*, 27, January. 1996, p. 3.; see also AARP(1999) *Global Aging e-report*, April.

¹⁷World Health Organization (1989) *Health of the Elderly*, Report of a WHO Expert Committee, Technical Report Series, 779. Geneva: WHO.; see also AARP (1999) *Global Aging Report*, Jan./Feb. 4(1), 1-3.; WHO (1999) *Ageing Exploding the Myth*, Geneva: WHO.

한 연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¹⁸ 이러한 연구들의 초점은 일반적으로 노령과 관련된 문제점들이었다. 노인의 질병과 정책개발에 집중했던 수많은 학문적 연구에 의해 강화된 노인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노인 뿐만 아니라 사회가 수용하게 되었다.¹⁹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증하는 것을 사회문제, ‘임박한 위기’ 또는 ‘무거운 짐’으로 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과 이미지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놀라운 것은 노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²⁰

Atchley과 Cowgill에 의하면, 이러한 노인인구의 변화는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결과인 도시화, 대중교육의 확대 그리고 건강과 경제적 기술의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대중교육의 확대는 보다 질 높은 학문적 또는 기술적 교육을 받는 젊은 세대에 비하여 노인의 위치를 손상시키며 도시화는 젊은 사람들을 시골의 공동체로부터 도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의해 전통적 대가족 제도를 붕괴한다. 건강관리의 증진에 의해 사망율의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현저한 증가를 일으킨다. 경제와 기술의 발달은 더 낮은 노동자 수요를 요구하고 직업에 대한 경쟁 때문에 세대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노인들의 고용 기술을 평가 절하시킨다.²¹ 여성들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의 지속적인 증가는 노인들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²²

은퇴의 개념에 대한 대중화와 기업의 은퇴수용은 노인의 삶이 분명히

¹⁸Featherstone, M. and Hepworth, M. (1993) ‘Images of ageing’, in J. Bond and P. Coleman (eds) *Ageing in Society: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London: Sage, pp. 304-332.

¹⁹Ibid., p. 1.

²⁰Featherstone, M. and Wernick, A (eds) (1992) *Images of Aging*, London: Routledge, p. i.

²¹Atchley, R.C. (1991)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London: Wadsworth Publishing Co. p. 48.; see also Cowgill, D. (1974) ‘Aging and modernization: a revision of the theory’, in J.F. Gubrium, (ed.) *Late Life: Communities and Environmental Policy*,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 141.; Fisher, D.H. (1977) *Growing old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0-21.

²²Hwang, N.M. (1996) *Overview of Reproductive Health Indicators in Korea*, Seoul: KIHASA, pp. 26-29. A women’s vocational training in socio-economic activities today is at a higher level than ever before. The socio-economic activity rate of married women is increasing from 42.5% in 1985, 49.2% in 1990 to 49.1% 1994 in Korea.

차별대우를 받는 시기임을 확정하는 중요한 첫 단계이다.²³

Poling은 노인들이 상실의 위기, 육체적 쇠약, 그리고 사회적 억압에 직면한다고 지적하였다.²⁴ 심지어 노인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돌보거나 도와주는 사람들조차도 노인에게 가치 있는 존경, 동정 그리고 고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제공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²⁵

Robert Butler는 노인들이 심각한 편견과 차별대우를 모든 사회영역에서 실제로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인차별주의(Ageism)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피부 색깔과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차별을 수행하듯, 노인들이 늙었다는 이유로 분리시키고 조직적으로 고정관념화 시키는 과정이다. 노인들은 생각과 태도에서 노쇠하고 완고하며 도덕성과 기술이 낮은 것으로... 노인차별주의(Ageism)는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그들과는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 세대는 노인을 존엄성 있는 인간으로 보는 것을 회피한다.”²⁶

이와 같이 팽배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와 노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사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에 의해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고 이것은 곧 최고의 성취를 향해 발달하는 것으로 믿는다. 만약 최고의 정점이 완전한 힘,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의 완전한 표현으로 여겨진다면, 노화는 이러한 가치들이 점점 상실하는 시점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화는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²⁷

Simone de Beauvoir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가오는 노년기가 슬픔이 가득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노인이 겪는 상실과 위기가 죽음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혐오감으로 노인에게 채워지기 때문이다.²⁸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가 개성과 자아-존중감의 기초로 여기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진 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²³Fischer (1977) op. cit.,

²⁴Poling, J. (1989) ‘Old age: a time of crisis’, *Journal of Religion and Aging*, 15(3), 31-41.

²⁵Erikson, E. (1978) *Adulthood*. W.W. Norton & Company, pp. 1-31.; see also Kiumel, D.C. (1980) *Adulthood and aging: An Interdisciplinary Developmental View*, New York: John Wiley & Sons.

²⁶Butler, R.N. (1975) *Why Survive?: Being Old in America*, London: Harper & Row, P. 12.

²⁷Richard, L. (1982) ‘Toward a theology of aging’, *Science et Esprit*, XXXIV(3), 274.

²⁸Beauvoir, S. de (1973) *The coming of Age*, trans. Patrick O’Brian, New York: Warner Publications, p. 529.

특별히 은퇴 후에, 노인의 왜곡된 이미지와 감소된 위치는 현대화의 결과와 함께 새로운 사회와 건강관리문제, 심리적 소외, 수입의 감소, 경제적인 의존성의 증가 그리고 더 길어진 여가 시간과 같은 영역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분명한 것은, 노인의 왜곡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산업화 그리고 사회적 분화, 지식중심 그리고 생산과 같은 사회적 과정의 다양한 영역 뿐만 아니라 전통적 가치와 사회적 변화 그리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화 이후의 은퇴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능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개인의 분명한 판단과 시각의 능력과 함께 쇠퇴하는 것으로 여긴다. Bee와 Mitchell은 은퇴 후 노인의 5가지의 특징을 작고, 느리고, 약하고, 가치와 중요성이 덜하고, 열세한 소수의 집단이라고 정의한다.²⁹ 더 나아가 노인들은 덜 매력적이고, 신체장애자가 되며, 성생활을 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³⁰ 그리고 그들의 이미지는 불쌍하고, 혐오스럽고, 나태하며, 생색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에 의해 특징 짓는 부정적 시각에 의해 왜곡되었다.³¹ Kitzinger는 노인을 무지하고 수동적이며 나약한 존재로 여기는 시각이 노인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지배하며 노인들을 오히려 희생과 억압 속으로 가두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³² Coupland에 의하면, 노후의 수 많은 부정적 면들은 사회적 노인차별주의 (Social Ageism)에 의해 노인을 편만하게 차별 대우하는 원인이 되었고 노인들의 개인적 가치와 존엄성을 파괴하는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³³

대부분의 은퇴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지 나이가 많고 외형적으로 늙었다는 이유로 편견 속에

²⁹Bee, H. & Mitchell, S.K. (1980) *The Developing Person: A Life-Span Approach*,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³⁰Butler, R. (1975) *Why Survive?* op. cit.,

³¹Scrutton, S. (1990) *Age: The Unrecognised Discrimination*, London: Age Concern, p. 13.

³²Kitzinger, J. (1990) 'Who are you kidding? Children, power and the struggle against sexual abuse', in A. James and A. Prout (eds) *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Childhood*, Basingstoke: Falmer Press, p.158.

³³Coupland, N., Coupland, J. and Giles, H. (1991) *Language, Society and the Elderly: Discourse, Identity and Ageing*, Oxford: Blackwell, p.13.; see also Scrutton, S.(1990) *Age: The Unrecognised Discrimination*, London: Age Concern, p. 13.

살아야 한다.³⁴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연합하여 자신감의 상실, 외로움과 소외를 만들고 이러한 이미지는 다시 노인들에 대한 부양, 복지, 그리고 노인을 향한 가족, 사회 그리고 정부의 태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³⁵

노인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 또는 실체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사람들, 다른 젊은 세대 그리고 심지어 노인 자신들이 사용하며 노인들의 삶을 구성하고 제한하며 그들을 의존하는 존재로 낙인 찍는다. 결국 노인들은 자신들을 이러한 이미지 안에서 인식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 외에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립성, 유급노동 그리고 개인의 지위 사이를 직접 연관시키기 때문에 은퇴한 사람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노동세계로부터 완전한 자아를 거부당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³⁶ 다양한 은퇴 제도 속에서 다른 젊은 세대의 삶과 비교하여 노인은 다른 종류, 다른 삶의 질을 가지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뿌리깊게 자리잡는다.³⁷

노화와 노년기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회적 상황 안에서 존재한다. 그 결과로 새로운 장기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와 정부의 역할에 의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자체의 정신구조와 새로운 삶의 태도 그리고 사회의 새로운 인식에 의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능가하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노인들이 어떻게 자아발전과 성취를 이루며 그들의 전생애의 삶을 통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의 실체를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는 연령차별주의와 사회적 노인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과 노력으로 은퇴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이 권리와 책임이 있는 시민으로서 그들의 질적 삶, 존엄성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재발견하여야 한다.

³⁴Crandall, R.C. (1980) *Gerontology: A behavioral Science Approach*, Massachusetts: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³⁵Brubakers, T. & Power, E. (1976) 'The stereotype of old: a review and alternative approach',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1-447.

³⁶Hockey, J. and James, A. (1995) 'Back to our futures: Imaging second childhood' in M. Featherstone and A. Wernick (eds) *Image of Ageing: Cultural Representations of Later Life*, London: Routledge, p. 140.; see also Bengtson, V.L. & Kuypers, I.A. (1973) 'Generational difference and the developmental stake',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 249-260.

³⁷Fischer, D. H. (1977) *op. cit.*,

그러므로 단순하고 편견적이고 편협적인 구태 의연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바로잡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속적인 활력, 창의력, 능력이 있는 풍부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누구나 거쳐가야 할 삶의 과정을 나타내는 올바른 신학적 대안과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요구된다.

4. 노인신학의 발전적 방향

4-1. 노인의 영적 성장

지금까지 한국과 세계 노인인구 동향과 그 주요 원인 그리고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현대화와 산업화의 영향과 함께 발생하는 노인들의 부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노인차별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새로운 긍정적 이미지와 성공적인 노후의 삶의 영역을 포함하는 신학적 도전과 목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Heinecken은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신학적 확신은 노화와 노인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특별한 문제들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³⁸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에 관한 특별한 신학이 없다. 단지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성경적 그리고 신앙 고백적인 것이 노인의 문제에 적용되고 있다.”³⁹고 한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오늘날 다양한 분야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놀랍게도 노인에 대한 신학적 연구와 목회적 관심의 대책이 너무나 미비한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신학적 전통의 관점에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는 고결한 삶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창조된 질서 안에 있는 특별한 범주임을 나타내고 당연한 존경과 영광이 함께 하는 시기로 나타난다.⁴⁰

Maves는 노년기가 축복이라는 것에 대하여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용한다. 예를 들면 육체적, 정신적 쇠약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의 부정적인 측면과 노인의 지혜와 권위 그리고 사회적 위치 상승 등과 같은 긍

³⁸ Heinecken, M.J.(1989) ‘Christian theology and aging: basic affirmations’, in W.M. Clements, (ed.) Ministry with the Aging, London: The Haworth Press, p. 76.

³⁹ Heinecken, M.J. and Hellerich, R.R. (1976) The Church’s Ministry with Older Adults: A Theological Basis, New York: Lutheran Church in America, p. 1.

⁴⁰ 잠 16:31; 레 19:32

정적 측면 사이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다.⁴¹ Bridge 역시 그 양면성을 지적한다: “비록 당신의 노환이 심각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질환과 함께 얽혀있는 특별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나이의 왕관 때문이다.”⁴²

다른 한편으로, 노년기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주장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모든 노인들이 미덕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Mather는 “사람이 장수하는 것은 커다란 축복으로 약속되어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그 연령에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불행한 노인들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지 못한 노인들 보다 더 무거운 짐의 혼란과 인생의 고민거리와 함께 깊은 수렁으로 내려간다.”⁴³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만약 노년기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왜 도덕적으로 불미스러운 노인들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마치 왜 선한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는가? 하는 질문과 같다. 그러나 신학적 연구의 중요한 관점은 노년기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수하고 장수가 반드시 미덕의 결과로 오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인간의 태도에 의해 무시되고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축복 개념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칼빈은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자연 법칙이다.”라고 한다.⁴⁴ 그는 계속해서 “많은 노인들은 그들의 경솔한 행동, 음란 또는 게으름에 의해 그들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비록 백발이 항상 고귀한 지혜와 함께 동반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여전히, 노인 그 자체는 존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⁴⁵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도 노인들을 존중할 것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장수와 축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약속 되어 있는 것이다.

칼빈은 “우리가 늙고 힘을 상실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⁴⁶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질병, 고통, 노화, 그리고 다른 어려움

⁴¹ Maves, P. (1960) ‘Aging, religion, and the church,’ in Clark Tibbets (ed.)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711.

⁴² Bridge, W. (1845) A Word to the Aged, in The Works of William Bridge, London: Thomas Tegg, p. 184.

⁴³ Mather, C. (1690) The Old man’s Honour, or, The Hoary head Found in the Way of Righteousness, Boston, pp. 28-29.

⁴⁴ Calvin, J.(1845) Commentaries, trans. Charles Bingham, 44vols,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5:19

⁴⁵ Ibid.,

⁴⁶ Calvin, commentaries, 16:400-401.

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전가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소유 하시도록 허용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노년기의 부정적인 면들이 있음 시사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준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관점에서 그 목적을 위해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완전한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올바른 방법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성숙을 찾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다.”⁴⁷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양면성 가운데에서도 영적 성숙과 실현이 필요하고 이상을 향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완전한 성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면은 자기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칼빈이 “누구든지 주님께서 양자 삼으셨고 그분과의 교제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과 악으로 가득 차있는 수 많은 다양한 것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정한 시험에 두시고 그들을 훈련시킨다.”⁴⁸고 주장하듯이 고난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속성을 깨닫게 되고 육체의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한다. Wilhelm Neesel도 칼빈의 입장을 신중하게 언급한다. “불행과 슬픔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것들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소외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고난이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기 때문이다.”⁴⁹ 물론 고통은 징계이다. 그러나 현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절제한 욕구와 필요의 헛됨을 상기시키는 것에 의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현재 삶의 모든 면들이 무시되거나 경멸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 생애를 통한 크리스찬의 성숙과 성장의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잠재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이 노화의 과정에 있는 크리스찬의 삶에서 노년기의 의미를 육체적 쇠퇴에 관한 것보다는 영적 활력의 관점에 더 큰 중요성을 두는 것은 크리스찬의 전 생애의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적 성숙과 성장을 추구하는 과

⁴⁷ Calvin, Institutes, 686 & 688.; see also Calvin, Commentaries, 41:283.

⁴⁸ Calvin, Institutes, 702.

⁴⁹ Niesel, W. (1980) The Theology of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p. 146.

정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⁵⁰

칼빈의 관점에서 노인은 고통의 한 유형이다. 고통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믿음과 희망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에서 오는 것으로 삶을 강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좋은 노년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은 좋은 의식,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이다.”⁵¹ 이것은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사람들이 얻는 상태이며 “이 거룩함은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좋은 노년기를 보내게 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고요한 마음을 소유하기 때문이다.”⁵² 그러므로 칼빈의 관점에서 좋은 노년기는 육체적 종말에 직면하면서도 의로운 삶을 지속하는 노력에 수반되는 고요한 마음 즉 영적 성장을 실현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노년기의 특징은 종교 윤리적 증인으로서의 복된 노후의 삶이다. Ambrose는 “노인기는 백발 머리와 함께 늙어가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에 의해 진정으로 존중을 받는다. 이러한 노인기는 존경 받고, 영혼의 진부함 그리고 뛰어난 생각과 행위로 빛난다.”⁵³

신학적 전통에서 노인기의 종교 윤리적 증인으로서의 해석을 고찰할 때, 오늘날 대부분의 윤리적 문헌은 노령의 윤리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노인을 돌보는 윤리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서 대부분은 정부에 의해 지지를 얻는 것으로써 노인을 위한 생활 보호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호하거나 비판하는 것들만 다루고 있다.⁵⁴ 물론 이것들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노인의, 새로운 긍정적 이미지로써, 도덕적 실천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노인의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그들의 의무를 소개하고자 한다.

노인의 종교 윤리적 증인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다. 실천적인 용어로써, 이것은 명상(묵상)하는 것으로 회개와 과거를 회고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노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노인들이 임종 가까이 다가 갈수록 그들의 삶의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묵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바르게 맡기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노인들은 묵상을 통해 영광의 처소와 영적 유산이 있는

⁵⁰ Calvin, Commentaries, 10:504.

⁵¹ Calvin, Commentaries, 2:37.

⁵² Ibid.,

⁵³ St. Ambrose, (1973) Complete Letters, trans. Sister Mary Melchior Beyenka, vol. 26 of The Fathers of the Church,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p. 69.

⁵⁴ Bridge, op. cit., p. 186.

영원한 곳을 간절히 소망한다.

노년기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유지한다는 것은 노인에게 도덕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중요한 한가지는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다. Clement of Alexandria는 노인의 단순한 존재는 더욱 거슬리는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 이 목적을 위해 섬기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뢰를 회복하는 노인은 소외와 격리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발에 대해 존중하는 표시는 매일 빛 가운데서 나타나며 젊은이의 존경을 획득하는 것이다. 가끔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부끄럽게 행동할 때에 노인들의 가르침은 그들을 진지하게 변화시키고 젊음의 욕망을 멈추게 한다.”⁵⁵고 하였다. 크리스찬 신학적 전통은 젊은이를 가르치는 것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노인의 중요한 의무임을 강조한다. 모든 노인들의 오랜 경험이 전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젊은 세대에 따르는 책임은 노인의 이러한 증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년기에서 인간의 성취는 단순히 자아-실현이나 자기 자신의 일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인들에게 요구되는 분명한 기대가 있는데 노년기의 성취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젊은 세대와 덜 현명한 사람들의 잠재적 성취에 공헌하는 것으로 세대간의 상호 이해와 책임이 있다.

Baxter는 “하나님은 노인들의 이러한 의무를 만드셨다, 성부 아버지는 그의 놀라운 사역과 자비하심을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 노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⁵⁶ 노인들은 정보를 직접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지혜, 거룩함 그리고 진지함의 귀감이 되는 모델로써 살아가는 존재임을 젊은이에게 가르친다.⁵⁷

노령과 함께 인간의 성취에 대한 이해는 노령화와 관련된 쇠퇴와 상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실천신학의 원리적 연구에 포함한다. 사람들이 은퇴 후에 사회에 참여했던 활동으로부터 분리되더라도 그들의 육체적 조건만 허락된다면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기의 성취는 노년기의 한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주의적 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⁵⁵ Clement of Alexandria, (1872) “The Instructor,” in Writings of Clement of Alexandria, trans. William Wilson, Ante-Nicene Christian Library, Edinburgh, p. 319.

⁵⁶ The Practical Works of the Rev. Richard Baxter, ed. William Orme, 20 vols. London: James Duncan, 4:399.

⁵⁷ Ibid.

들의 성취를 돕는 것과 함께하는 자기 자신의 성취와 상호 관계성을 의미한다.

사람은 육체적 경주에서, 그들의 백발이 엄습할 때마다 자신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육체에 의존하여 경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영적 경주는 새로운 삶을 일깨워주며 오히려 노년기에 더욱 강해진다. 이것은 삶의 완전한 능력이요 자부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기에 회복해야 할 새로운 긍정적 이미지이다.

4-2. 노인신학의 통합적 발전 논리

상실과 쇠퇴가 함께하는 노년기의 경험은 성장과 성숙에 대한 생각을 단순히 거부하거나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한다.

노화와 함께하는 인간의 특성에는 상실과 획득의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육체는 쇠약해지고 일시적이며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실을 의미하는 반면에, 획득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성숙되어지는 것으로 거룩함에 참여하는 활동적 지식과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물리적 몸은 노화와 함께 쇠퇴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영은 새로운 삶 안에서 발전한다.

여기에서 자연(육체)과 영 사이의 구별은 영은 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성을 가지는 반면에, 육은 일시적이며, 저급하며 부패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노화와 노인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때에 심각한 이원론적 경향을 나타낸다.

포스트모던적인 생각의 특징 중의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플라톤이든 데카르트 형식이든, 이원론적 경향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것은 이러한 이러한 이원론적 경향은 더 이상 노인기의 성숙을 이해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Mary Midgley는 간결하게 전제를 말한다. “우리는 의롭지 않다 오히려 동물과 같다; 우리는 동물이다.”⁵⁸ 물론 Midgley가 사람과 다른 동물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주장은 인간의 고차원적 능력, 예를 들면 대화, 이성과 문화가 자연(육체)과 구별되지 않는다 오히려 특별한 발달이 자연(육체) 안에 있다고 강조한다.

Midgley, Konrad Lorenz, George Pugh, Donald Campbell 그리고 Victor Turner는 적응적 발전의 중요성을 통해 인간의 고차원적 능력을 이해하고자 했고, Sigmund Freud, Carl Jung, Erik Erikson 그리고 Heinz

⁵⁸ Midgley, M. (1978) *Beast and Man: The Roots of Human Natur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p. xiii.

Kohut는 원초적이고 무의식의 생각의 차원을 성숙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Karl Marx, Max Weber 그리고 Jurgen Habermas는 인간의 삶에서 물질적 배경과 가장 높은 영적 성취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애매한 이원론적 개념을 나타낸다.

인간이 영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전통적 이원론은 우리의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Claus Westmann은 지적하기를 구약의 창조의 설명에서 인간은 완전한 통일체로서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인간을 육과 영, 또는 몸, 영, 혼으로 나누어진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 “성경은 어떤 분리도 허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육체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영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지 않는다.”⁵⁹ 그러므로, 노년기의 성숙의 개념에서 일방적으로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이원론적 경향은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회적 돌봄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

대중 문화의 어떤 면들은 노화와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모든 노인에게 동일시하여 노인들의 불명예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인간의 특성과 발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한지에 대한 신학적 대안이 필요하다.

비통합적 발전 논리는 자연(육체)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명확하게 낮은 단계의 것으로 분리시키지는 않지만 인간 발달에 있어서 영과 육이 완전히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인간의 발달은 단순히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발전하거나 성숙을 향해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것은 노년기의 성장에 대한 이해에서 피할 수 없는 성격의 무의식과 원초적인 차원과 같은 모호함을 해결하지 못한다.

Henri Nouwen과 Walter Gaffney는 “노년기에 성장하는 비전은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는 곳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우리를 과거와 함께하는 편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중요성으로부터도 떼어놓는 비전이다. 이것은 우리를 삶과 그것의 고통을 천천히 잃어가는 죽음 사이의 구별에서 완전성과 두려움이 없는 복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비전이다.”⁶⁰라고 하였다. 이 비전이 중요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쇠퇴의 과정들과 함께 지내온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할 수 없는 한계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다 (예: 생물학적 또는 정신적과정).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화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기초이며, 천천히 쇠퇴하는 하는 것이 아니

⁵⁹ Westmann, C. (1974) *Cre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p. 78.

⁶⁰ Nouwen, H. and Gaffney, W. (1974) *Aging: The Fulfillment of Life*, New York: Image Books, p. 79.

라 점진적인 성숙을 가져오고, 견뎌내야 할 운명이 아니라 기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⁶¹ 여기에서 그들의 문제점은 노인 자신의 더욱 힘든 극단적인 면들을 제한 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절망과 희망, 쇠퇴와 성숙, 극복해야 할 운명과 껴안아야 할 기회. 그들의 해석은 인간의 성취는 높은 수준의 자아-통합적 기능과 동일시 한다.

William Clements도 “육체를 초월”하는 노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들의 육체적 고통과 수고를 초월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들 만큼 불안하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감이 단지 육체적 편안함만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만약 내가 나의 행복감을 인간 관계와 창조적인 정신적 활동의 보상에 기초를 둔다면, 육체적 불편함이 나에게 위협이 되기 보다는 임박한 목적을 향한 움직임에서, 더욱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 또는 벗어나야 할 장애로써 경험된다.”⁶² Clements의 주장에 의하면, 노년기의 성숙은 단지 좋은 행운이나 올바른 의식, 판단과 결정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많은 무능력한 노인들이 그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만드는 효과 있는 결정과 같은 것을 동일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적 의지만을 중요한 주제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보다 높고 낮은 기능의 통합적 상호작용이 결여되어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의 이미지는 이원론적이지는 않지만 비통합적 발전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원론적 해석이 노인의 성숙을 육체의 독립적 과정에서 영적 진보와 이것을 위한 열정적 노력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비통합적 발전 논리의 해석은 미성숙과 낮은 것으로부터 더욱 성숙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과정과 기능을 향하여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으로 정의한다.

노년기의 성취를 위해 이원론이나 비통합적 발전 논리의 해석으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올바른 신학을 토대로 노인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발전 논리**가 필요하다. 통합적 발전 논리가 지지하는 것은 인간 발달이 단순히 보다 높은 수준의 기능만을 향해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항상 상위와 하위 사이의 통합적 상호작용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Hans Loewald는 “본능으로부터 자아에 이르기까지 일방통행은 없다. 비이성적인 힘이 우리를 반복적으로 압도한다... 개인의 발달은 동일한 그 본질적인 주제를 재경험하고 다른 수준의 정신작용과 활동이 일어나는 상향

⁶¹ Ibid., p.75.

⁶² Clements, W. (1979) Care and Counseling of the Ag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pp. 40-41.

하는 나선형으로써 묘사된다.”⁶³ 그러므로 인간 발달은 본능이 반복하는 역동성이나 미성숙으로부터 성숙을 향한 일직선상의 발전이 아니라 상위와 하위, 성숙과 미성숙이 통합적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노인에게 적용하면, 노년기가 상실과 쇠퇴를 직면하는 것 안에서 순수하게 퇴보하는 심리적 현상 또는 인간의 무의식과 원초적 차원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아야 한다.

통합적 발전 논리는 하위 또는 과거에 발달한 사건과 일들이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된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고 성숙하는 노인의 발달적 도전에서 지속적인 개혁으로써의 역동성을 제공한다.

5. 맺음말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급격한 노령화 국제사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욱 빠르게 발전하여 모든 영역에서 철저한 노인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노인학의 연구는 오늘과 미래에 더욱 중요한 학문이 될 것이다. 은퇴 이후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의 삶을 행복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심리학, 정신건강, 생물학 그리고 최근의 첨단적 의학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들의 개인적 성취와 영적 성숙을 위해 신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논문은 노인 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과 세계 노인인구 동향과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노인이 처해 있는 부정적 이미지의 위기를 살펴보았다. 노인의 새로운 긍정적 이미지는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며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신학적 전통의 관점에서 노인의 새로운 긍정적 이미지를 제시하였고 노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통합적 발전 논리의 노인신학을 제시하였다.

⁶³ Loewald, H. (1978) *Psychoanalysis and the History of the Individual*, New Have: Yale University Press, pp.22-23.